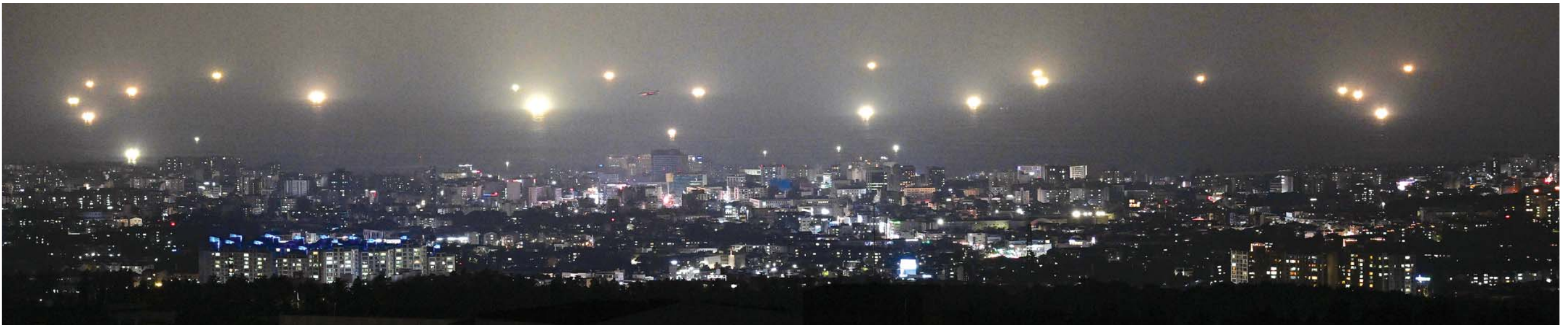




불야성 이룬 제주시 밤 풍경 지난 1일 밤 출어에 나선 어선들이 커놓은 집어등 불빛과 시가지 야경이 어우러지며 제주시 밤하늘이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강희만기자

미분양 주택 3000호 육박 ‘역대 최대’

6월 말 2909호… 이전 최대 2024년 11월 2851호 넘어
준공 후 미분양도 2339호로 전체 미분양 주택의 80%
읍·면 지역 누적… 시내권은 고분양가로 구매 여력 ↓

제주지역의 주택매매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미분양 주택이 3000호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의 ‘6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도내 미분양 주택은 2909호로 전월보다 3.7%(105호) 증가했다. 종전 최대치였던 2024년 11월(2851호)을 넘어 역대 가장 많은 물량이다.

이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은 2339호로 전체 미분양의 80.4%를 차지했다. 역대 가장 많았던 올해 5월보다 3.3%(74호) 증가하며 한달

만에 최대치를 다시 갱신했는데, 한 달 새 증가한 미분양 물량의 상당수가 공사를 마친 뒤에도 주인을 찾지 못한 ‘준공 후 미분양’이다.

최근 분양한 주택들의 청약 경쟁률도 저조해 앞으로도 미분양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제주에서는 5곳의 주택 단지가 분양됐지만, 1곳을 제외한 4곳의 청약 경쟁률이 저조했다.

2월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분양한 리첸시아 표선 IB EDU는 50가구를 모집했는데, 1·2순위에서 청약

신청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4월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에서 분양한 PH159는 49가구 모집에 12명만 청약을 신청했다. 7월 제주시 연동에서 청약을 받은 신제주 동문디이스트 시그니처원 I과 신제주 동문디이스트 시그니처원 II는 각각 182가구와 196가구를 모집했는데 접수 인원은 각각 17명과 6명에 그쳤다.

읍·면 지역은 상대적으로 생활 편의시설이나 접근성이 떨어져 미분양이 누적되고 있고, 제주시 지역의 경우 높은 분양가로 실수요층의 구매 여력이 부족한 점이 미분양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동문디이스트 시그니처원 I·II의 이른바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의 최고 분양가는 11억6200만~11억8700만원이다.

올해 상반기 도내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감소한 반면 준공 실적은 소폭 증가했다. 인·허가는 807호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6.4%(55호) 감소했다. 착공은 1094호로 5.7%(66호)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 65호에 그쳤던 분양은 올해 753호로 크게 늘었다. 주택 준공은 3.8%(44호) 증가한 1193호로 집계됐다.

상반기 주택매매거래량은 3359건으로 지난해(3347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주택시장이 활기를 띠었던 2020년(4691건), 2021년(6633건), 2022년(4985건)과 비교하면, 침체기에 접어든 2023년(3478건)과 2024년(3155건)에 이어 올해도 거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제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네번째 도전 심사단, 3~6일 도 전역서 지질명소 관리실태 등 점검

제주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네번째 검증이 시작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검증 현장 심사가 3~6일 나흘간 제주 전역에서 진행된다. 심사는 유네스코가 선정한 지질공원 전문가 카를로스 네토 데 카르발류(포르투갈)와 루친페이(중국)가 맡는다.

심사단은 도지사 면담을 시작으로 성산일출봉과 수월봉, 산방산·용머리해안 등 주요 지질명소를 찾아 지난 4년간의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또 지오브랜드 참여업체와

지역 주민, 지질공원 해설사 등의 의견도 들을 예정이다.

현장 심사가 끝나면 평가 결과를 토대로 오는 11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이사회 심의와 12월 유네스코 총회를 거쳐 제주의 세계지질공원 지위 유지 여부가 확정된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4년마다 실시되는 검증에서 일정 기준 이상인 ‘그린카드’를 받아야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제주도는 2010년 국내 최초로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됐으며 2014년과 2018년, 2022년 재검증을 모두 통과했다.

이상민기자

‘반려섬’ 참여 기업 지정… 차귀도·람정·지귀도·한화

제주특별자치도가 ‘반려섬’ 참여 기업으로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차귀도)와 한화아쿠아플라넷 제주(지귀도) 등 2개 기업을 지정하고 본격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반려섬’ 제도는 도내 무인도를 대상으로 기업과 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공동관리 모델로, 정기적인 환경 정화와 생태 보전 활동을 통해 무인도서의 환경

적·생태적 가치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반려섬’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과 단체는 희망하는 무인도를 지정받아 2년간 활동하게 되며, 연간 2회 이상의 정화 활동과 1회 이상의 환경 캠페인을 수행해야 한다.

제주도는 시범 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참여 기업과 대상 무인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도내 12개 주요 유수하천 수질 ‘양호’

예래천, 강정천 등 도내 주요 유수하천을 대상으로 상반기 수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하천에서 대

체로 양호한 수질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

구에 따르면 도내 12개 하천을 대상으로 하천생활환경기준 9개 항목과 생태독성을 포함해 총 10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모든 하천이 수소이온농도, 생물화학적산소요구

량, 화학적산소요구량, 총유기탄소, 부유물질, 용존산소 등 6개 항목에 대해 환경기준 1등급(매우 좋음~좋음)을 나타냈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제주시장 이상봉·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지명… 2면 / “몸 마비될 정도로 덥다” 온열질환자 속출… 4면

제2회 한라일보배 전도태권도 품새대회 개최를 축하합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제주여행!

(주)유한고속관광이 고객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통학버스(등·하교) / 현장학습
수학여행 / 오름친목 / 결혼수송

전세버스 80대 보유

(주)유한고속관광

http://www.yeuhangosog.com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377
T.724-9595,0995, F.724-4411